

2024 SPRING 봄 한울타리

편집: 홍보위원회

Contents/ 목차

권두언	2
당회 소식	3
예배예술위원회	4
쉐마행사위원회	5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6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 감상문	7
신임 안수 팀 소개	
김대식 피택 장로	8
이수경/임극유 집사	9
3세대 교우 가정 소개 (3) - 엄순호 집사 가정	9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11
해바라기 주일학교	11
Ransom 중고등부	13
교육 2부 위원회	
청년 1/2부 주관 국내선교 바자	15
교육 2부 주관 한가족 예술제	16
부부청년부	17
구역소개 시리즈 (4) -중앙 2구역	18
칭찬합니다	
김연희 집사	19
부지형 집사	20
마리아 여성회	21
선교지 소식 -칠레	22
권사회	23
상록기도회	23
집사회	24
옛교우 동정 - 예배하는 자	25
이영길 담임목사 71번째 생일 축하 기도문	28
편집후기	28

저희 아버님이 홀로 되신 후 씨니어 타운에 사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를 저도 한국 방문시 자주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뜨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 컴퓨터에서는 뜨지 않아서인지 그 곳 컴퓨터를 켤 때마다 늘 신선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매일 신선한 선물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선물을 느낍니다. 봄의 향기로 가득찬 동식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 합니다.

‘새로운 시작.’

한편 성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컴퓨터는 아니고 자연세계도 아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Beginning is guaranteed by each new birth; It is indeed every man.”
(한 사람이 태어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들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당회에서 임명된 연임/신임 위원장들이며 2월 첫 주부터 시무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운영 위원회 : 이정규
건물관리 위원회 : 엄재관
교육1부 위원회 : 강상철
교육2부 위원회 : 윤경문/구용한
교육3부 위원회 : 한문수/(부)이재익
교인1부 위원회 : 정광근
교인2부 위원회 : 최현구
예배예술회 : 김한나/(부)김대식
재정 위원회 : 한문수
정평한 위원회 : 김한나
국내선교 위원회 : 안성완
해외선교 위원회 : 이정민/(부)김영돈
쉐마 행사 위원회 : 장양술/(부)최학수
홍보/역사 편찬 위원회 : 이혜승/(부)배광현
공천 위원회 : 안성완/(부)강상철

당회 서기 : 장양술
재단 이사장 : 엄재관
인사 위원 : 당회 서기, 재단 이사장, 김한나
재정 감사 : 최현구
노회 총대 : 당회 서기, 이혜승
집사회 회장 : 배광현
집사회 고문 : 이정규

여러 교우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 일꾼 삼으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며 주께서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가는 2024년 한 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에 예배예술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오신 박신영 장로님이 올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어서지요. 늘 지켜볼 때마다 ‘이 위원회는 왜 그리 하는 일이 많은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제가 올해 로또를 맞았습니다. 봐오던 것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일이 어찌도 많은지...

예배위원 챙기기, 헌금 접시 챙기기, 설교자 음료 챙기기-물론 제가 손수 준비하는 것은 아니나 어쩌다 준비가 안 되었을 시, 강단 위의 목사님의 신호로 발에 불뚱이 떨어진 듯 움직여야 하고, 예배 동안 스피커의 문제가 있으면 또 불뚱 맞은 듯 방송실로 뛰어가야하고... 공기순환을 위해 창문도 한두 개 열어놓기, 습도 조절위해 가습기 틀어놓기, 예배 시작되면 사무실의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예배가 잘 보여지는지 등등...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식 부위원장님이 수년간 부위원장으로 섬기셨기에 저는 그저 손가락만 얹은 느낌이었으나 그것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동안 저는 찬양대에 자리잡고 앉아 거룩히 예배만 드렸기에 몸으로 뛰며 예배 상황을 섬기는 것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홍보위원장을 하며 한올타리 원고를 당회원들에게 원했던 것은 보고형식이 아닌 이야기 형식의 글이었던 만큼 이번엔 기필코, 결단코, 나만이라도 이야기를 풀어가듯 위원회 사역을 알리리라 맘먹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아셨듯이, 신임 서리집사, 재임 안수집사, 재임 장로들을 위한 제직임직예배를 시작으로 예배예술 위원회의 첫 임무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4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주일이 시작되었고, 특별 주일예배로는 2월 25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David Kim 교수의 초청 설교), 3월 10일 James McCarty 교수의 영어 초청설교가 있었습니다.
늘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진행되어왔으나 사순절 기간 동안은 기도회 후 아침 친교시간을 갖기로 하였고, 당회원 가족의 한 주씩 자발적 봉사하에 더욱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하고 친교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예배에는 찬양팀이 열성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매월 모여 연습을 하고 많은 시간과 봉사를 하는 것에 또 한번 숨은 공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월 2일 “찬송가와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을 준비하는 과정들, 한번 모일때 마다 2-3시간씩 연습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것에 헌신적인 섬김 - 소위 소명의식- 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움, 존경심도 경험했습니다.
찬양대의 섬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1부 반주자로 섬겨왔던 김소명 교우 자리를 대신할 박초롱 교우의 인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성금요일에 가질 음악예배를 몇 번에 걸쳐 연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금요일 예배 음악 순서는 “2024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실린 교우님들의 글 몇 편을 함께 나누며 음악을 연주합니다.

4월 6일의 제직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부강사님을 초대하여 강의를 들었으나, 올해는 저희 제직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여, 외부인 초청없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의 이메일을 제직들에게 보내어Save the Date, Reminder mail로 많이 참석하실 것을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소임을 다하시며 섬기고 계시는 여러 예배예술위원들께- 섬김이들은 자신이 예배예술위원이라 명명되는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쉐마의 밤은 “신임제직과의 만남”라는 제목으로 2024년 안수받을 추천장로와 집사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서리집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신임제직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백반으로 든든하게 육신의 양식을 채우고 양원제/최효영 집사부부의 촛불로 3월 쉐마의 밤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대를 꽉 채운 청년1-2부 찬양팀이 힘차고 흥겨운 찬양으로 쉐마의 밤에 참석한 교우님들의 가슴에 뜨거움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안수팀의 스킷은 우리교회의 올해 표어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혜승 장로의 대본에 에스더 여왕으로 등장한 이예복 교우의 진행이 함께한 교우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잔잔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서리집사들은 “그의 집에 영원히”를 개사하여 각자를 소개하고 서리집사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순으로 초등부-유쓰 아이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양상블”이 등장하여 육혜진 집사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를 멋진 연주로 들려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려운 시기에 짐을 나눠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보여준 지파 간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4년 새로 임직 받으시는 제직분들과 함께 보스톤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섬기면서 우리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 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장로

1. 2024 사순절 묵상집 제작 및 배포 (2월 9일)

유례없이 차고 넘치는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올해 사순절 묵상집은 전례없는 다각도의 신앙이야기들로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Hard copy 책의 페이지 리밋때문에 다 넣지 못한 이야기들은 디지털 버전의 사순절 묵상집에 차곡차곡, 겹겹으로 넣어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두진휘하신 우리 보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내년 사순절 묵상집 원고모집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내실 곳: 이혜승 장로 epiyodler@hotmail.com).

어느날 갑자기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날 써내려가신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personalized special touches가 임하시길 기도드리며, 내년 사순절 묵상집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묵상집 작가님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쉼마의 밤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포 (3월 17일 주일예배시 상영)

늘 그렇듯 이번 3월 쉼마의 밤 홍보 영상도 홍보위원회에서 정성껏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주일예배시 짧은 홍보 영상을 전교인과 함께 나누었고, 이 외에 이메일 및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달하여 홍보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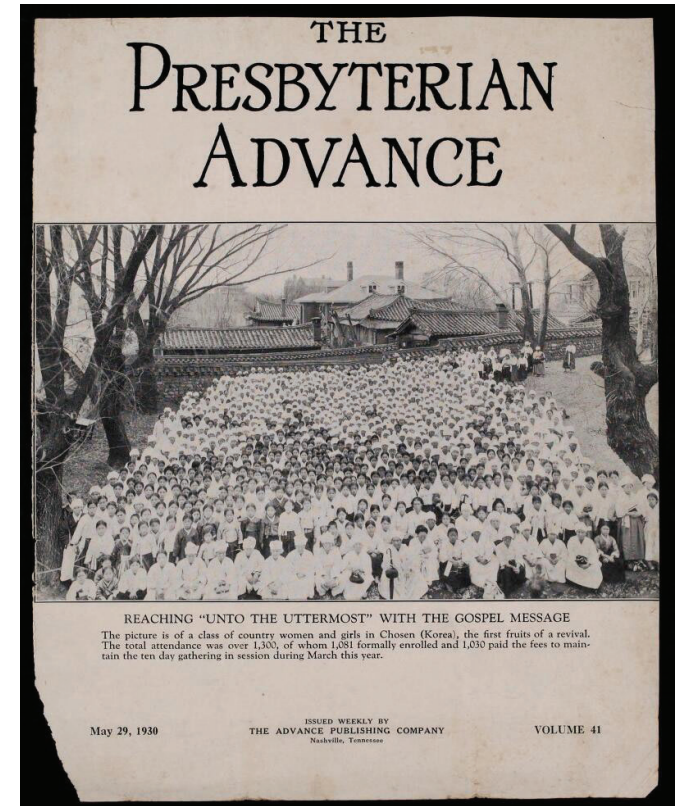
3.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각 그룹의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사진기자, 영상기자, 영상편집자, 편집위원 등)을 찾습니다.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혜승 장로께 (epiyodler@hotmail.com) 연락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 감상문

Jade Bury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rookline, FPCB)

The Korean Church dates to the early days of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Several American missionaries inspired the strong, Christian faith in Korea through mission trips. These mission trips have greatly impacted the people of Korea, as kingdom and social orders were coming to a halt, and people desired a new life. By 1900, there were 60,000 Christians in Korea and growing. A Presbyterian seminary had opened in 1905 in Pyongyang for the believers of Christ to worship and pray. This seminary would be the catalyst for The Great Pyongyang Revival. This revival served as a time for believers to confess sin and have a place to privately speak to The Father. This caused those to celebrate Christ and spread the word of the good news to communities around North Korea. With the baptism of new Christians in the Korean community, there became an expansion in education both for men and women along with medical programs. Over a hundred years late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was founded in 1953 and continues to uphold the mission of spreading God's word and love with the Korean community worldwide.



2024년 신임 안수팀 소개

2024년에는 총 4명의 집사님들이 함께 신임 안수 팀 동기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대식 피택 장로님과 이수경 임극유 부부 집사님, 그리고 엄순호 집사님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안수 동기로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네 분 지금 만나보시죠~



(3월 쉼마의 밤 신임 안수팀의 “너희가 서로 집을 지라” podcast 중)

김대식 피택 장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임 장로로 추천된 김대식 집사입니다. 저는 현재 예배예수 위원회를 섬기고 있으며 중앙 3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인 최정우 집사, 딸 하은, 그리고 아들 진유로 현재는 앤도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자로 2002년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왔고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반년 정도의 방황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경/임극유 집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경 입니다. 미국 Massachusetts 에 산지 24년차 되고 보스톤한인교회에 나온지는 8년째 입니다. Framingham에서 남편 임극유 (Frank Lin), 두 딸 아이 임누리 (5세), 임하리 (1세)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로 일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뒷마당 가드닝과 그림 그리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극유 입니다. 저는 2002년에 미국에 와서 2016년부터 보스톤한인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청년2부 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함께 부부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직업은 Real Estate agent로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안수집사로 추천 받고 교육 받는 중인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편집자 주(註)>: 엄순호 집사님 소개는 ‘3세대 교우 가정 소개’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세대 교우 가정 소개

세 번째 이야기: 엄순호 집사 가정

엄순호 집사

안녕하세요. 안수집사 교육을 받고있는 엄순호 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저의 아내 곽보람 교우, 그리고 이제 3살인 아들 엄태윤 군이 있습니다.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함께 교회에 나온지는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저의 부모님은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엄재관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는 김용희 권사님 이십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Indiana 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plumber 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보스턴 서북쪽의 Westford 라는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보스턴 지역에 이민을 온지 24년이 다 되어갑니다. 부모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보스톤한인교회이고 그후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보스톤한인교회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졸업 후에는 청년 1부로 가지않고 1부 오전 대예배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저희가 살고있던 Watertown 을 떠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오십분이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니 점점 몸과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몇 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의 광야생활 중 저의 어머니가 부탁 또 부탁하셔서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 청년 2부의 회장을 맡고있던 형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2부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길고 긴(?) 청년 2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청년 2부 모임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긴장 속에 처음 모임에 나갔던 기억이 었그제 같은데 저도 어느덧 청년 2부 10년 째밤에 부청 2년 그리고 서리집사를 거쳐서 안수집사 교육을 받고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년 2부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처음 청년 2부에 출석했을 때 담당 목사님이셨던 허신영 목사님 그리고 후임으로 저희를 맡아주신 윤경문 목사님 등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 교육을 받은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의 첫 번째 교육 중 이영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 교회’ 가 떠오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 교회는 바로 보스톤한인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 나의 어머니 교회!

저와 저의 아내는 김영돈 집사님과 최페이지 집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두 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인 태운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영주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출산및 육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지내다가 2022년 미국에 함께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보스톤한인교회 (특히 청년 2부)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저의 성장을 이끌어 주었던 곳이 바로 보스톤한인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지난 1월 말에 정.평.환의 모임을 갖고 새로운 섬김의 길을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 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던 “ My 인생 텀블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서면 볼 수 있도록 세워진 banner도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것이고, 이젠 제발 여러분의 눈에 띄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텀블러 갖고다니기를 종용하기 위해 이번 4월에 갖는 제직수련회 때는 참석하는 분들께 Collapsible travelling cup을 무료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평.환.의 사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함께 섬기시길 원하시는 교우님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 다시금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플라워 어린이들은 기나긴 겨울 동안에도 ECC 예배당에서 한결같이 예배를 매주 드리며 또 다시 새로운 결실을 맺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예배하고 섬기며 매 순간 느끼는 것은 저와 아이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저 또한 아이들에게 배우는 상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모습과 진솔하게 나눠주는 이야기들은 실로 순수하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송고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태도는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떠오릅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by Robert Fulghum).

1월에 우리 어린이들은 복주머니 사역을 준비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고, 2월에는 설날 잔치를 통해 한국적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삼일절 기념예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과 신앙인으로서 비폭력 운동을 통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시고 계십니다.



4월과 5월에도 다가오는 사역들이 많은데, 차가운 겨울을 보내며 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도움과 사랑의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Ransom Youth Group

정은택 전도사

유스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택 전도사입니다. 저희 유스그룹은 2024년을 맞이하여 첫 분기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선플라워와 함께 연계하여 복주머니 나눔을 하였으며, 아이들은 각자 가져오기로 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편지를 작성하였고, 그렇게 모은 것들을 선생님들의 포장을 거쳐 소방서와 경찰서, town hall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월달에는 많은 학생들이 삼세대 설날잔치에 참여하여 한복을 입은 채로 교회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덕담을 들으며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옷놀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역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수련회가 3월 29-31일까지 예정되어 있었기에, 아이들은 pre-activity시간을 통해 수련회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으며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수련회 때 함께 입을 후드티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투표를 통해 학생이 직접 작업한 디자인을 채택하였고, 수련회 때 다같이 그 옷을 입으며 하나된 유스그룹으로의 소속감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Name: 6th_Isabelle Date: 2/14 Wed.

RETREAT HOODIE DESIGN

Design your own retreat hoodies. Draw, color, and describe.



__theme: Resurrection__

__Front: __ Holy, Peace, Hope

__Back: __ Ransom Youth Group__

올 상반기의 가장 풍성했던 행사는 수련회였습니다. 평상시 예배드리는 숫자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자발적으로 준비에 임한 찬양팀과 교사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풍성한 예배와 재미난 일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그룹 내에서도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었기에, 각자 등에 종이를 붙여 서로의 첫 인상을 써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를 설명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평상시 대화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조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게임하면서 보다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도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스그룹에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은 6학년 아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던 모습,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적던 모습,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던 모습, 드 넓은 은하수 아래 캠프파이어를 배경삼아 찬양을 부르던 모습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하고 하나된 유스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스그룹도 올 하반기부터 함께 섬기실 수 있는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언어는 문제가 안 되더군요.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2부 위원회

윤경문 목사

청년 1, 2부 주관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 - 4월 7일 (주일)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뉴멕시코 단기선교를 올해 7/13-20일에 다음과 같은 선교 주제로 가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다시 뉴멕시코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안고,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를 청년 1, 2부 청년들의 주최로 마련하였습니다. 뉴멕시코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청년 1,2부 청년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한, 교우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선교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바자는 물품 바자와 음식 바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물품 바자는 교우님들께 기부 받은 물품들을 판매하여 기금 마련을 하였습니다. 기부받은 물품은 의류, 그릇, 가전제품, 생활용품, 운동기구, 취미용품 등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께서 좋은 물품들을 기부해 주셨고, 또, 바자회날 기쁜 마음으로 구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물품 기부는 기금 마련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서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나눠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 바자로는 비빔밥과 떡볶이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자 전날 모여, 비빔밥 재료들(호박, 홍당무, 오이, 무채, 숙주나물 등)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비빔밥 맛을 내기 위해서 모셔온 셰프들(홍영희 권사님, 진정원 집사님)께서 애써 도와주셨으며, 당일날 미숙한 손길들을 도와주시려고, 많은분들(이경자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정능화 권사님)께서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떡볶기 판매를 위해 [하주키친]의 권배근/정지숙 집사님께서 모든 재료를 Donation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바자를 통해 모금된 선교 기금(대략 7천불 정도)은 모두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쓰여지겠습니다. 뉴멕시코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은혜로운 단기선교가 되길 기도하며, 선교 바자를 위해 헌신하며 섬겨준 청년들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2부 주관 한가족 예술제 - 5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

매년 5월에 가졌던 한가족 예술제를 올해 5월 19일(주일)에 가집니다.

한가족 예술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 주일]을 기리며 온 구역과 부서가 참여하는, 여성회에서 주관해 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그간 여성회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어머니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교육 2부(청년 1, 2부, 부부청년부)에서 주관하여 열릴 예정입니다. 3세대가 같이 참여하여 찬양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기쁜 교회 행사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과 부서에서 찬송, 아니면 다른 공연(연주, skit, 등등) 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혹은 소그룹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족 예술제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4월 20일 까지는 각 구역/부서마다 참석하는 방식, 짧은 소개글, 그리고 예상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질문있으면 한가족 예술제를 총괄하게된 부부청년부의 양원제 집사님 (wjbyang@gmail.com) 께 이메일 보내주세요.



부부청년부

회장 홍정표 집사

부부청년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엡 2:19-22) 표어 아래 월 3회 이상 대면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이요한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설교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사경회로, 다른 한 주는 형제자매모임, 새가족 환영회, 베이비샤워, 조모임 등 교제를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를 찾아 주신 김영화/천홍주 가정과 새가족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순절에는 부청의 각 가정 마다 서로의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한없이 부족한 각자를 발견하고, 한없이 넓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역소개 시리즈 (4)-중앙 2 구역

구역장 김경애 권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2구역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모인 씨니여 그룹이다. 타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보스턴 지역에 정착한 자녀들의 근처로 이사오신 가정들과 이곳에서 오랫동안 본 교회를 어머니교회로 섬겨온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우명자/정무일 선교사님댁은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10 여년 간 한의사로 의료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은퇴 후 따님이 사시는 이 곳 보스턴으로 이주해 오셨다. 권만강 권사/윤원길 장로, 최송자 권사/최연일 장로 부부들 그리고 홍영희 권사, 김경애 권사는 해외선교 위원들로서 오랫동안 단기선교팀의 일원으로 의료사역에 봉사하였으며, 김경애 권사/한승희 장로 부부는 본교회에서 신혼부부 찬양대원들로 시작하여 지난 50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2023년 연말에 2부 찬양대에서 은퇴하였다.

우리의 정기 구역모임은 매월 1 회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Zoom으로 모여 “킹덤 라이프” 성경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한다. 성경공부는 윤원길 장로님, 최연일 장로님, 한승희 장로님이 돌아가며 인도를 하고 있으며, Zoom으로 하는 성경공부가 끝나면 그 동안 각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소식들을 돌아가며 나누는데, 특히 집에서 텃밭을 만들어 농사 짓는 이야기와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여행 갔다온 일 등을 서로 주고 받으며 구역원들 간의 재미있는 교제 시간을 가진다.

구역원들 간의 특별 Fellowship 프로그램으로는 성경공부가 없는 여름 철에 Concord에 있는 Great Meadows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구역원들 중 참석할 수 있는 몇 가정들이 모여서 호수에 가득히 만발한 연노란색 연꽃들의 경치를 함께 즐기며 걷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한다. Natick에 있는 사과와 배나무가 있는 Lookout Farm의 야외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다. 연말에는 정무일/우명자 선교사님 댁에 모여 Potluck 점심식사와 Yankee Swap 선물교환의 즐거운 모임을 갖기도 한다.



(2022/2023 연말 모임, 우명자/정무일 선교사님 댁)

구역원 명단: 김성환 장로/민병주 권사, 박차선 권사, 송미자 권사, 신영각 집사/홍경자 장로, 윤원길 장로/권만강 권사, 윤헌자 집사, 이경자 권사, 이재명 집사/김명희 집사, 조만연 장로/조옥동 권사, 정명상 집사/강영숙 권사, 정무일 선교사/우명자 사모, 최연일 장로/최송자 권사, 한승희 장로/김경애 권사, 홍영희 권사

칭찬합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세상의 빛, 김연희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전 큐티할 때 김연희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교회에서 토요일 오전에 한국학교가 열립니다. 설날 잔치에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그야말로 대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만들기 체험과 음식 시식이 빠질 수 없고 선생님들은 모두 다른 준비로 바쁠 때, 김연희집사님이 떡국이며 잔치음식들을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손질하고 매년 다른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본인의 아이들이 이 한국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감사하는 마음에 매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선생님들 식사준비도 항상 해주시고요. 보통 본인의 아이들이 다 배우고 나면 자연스레 관심이 없어질 만도 한데 김연희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빛을 비추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는 음식 더 해서 나눠 준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때는 일부러 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이리 저리 알아보셔서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 선행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과 선물을 축하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기뻐하는 김연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김연희 집사님과 아들 안성민 교우)

보스톤한인교회의 홍길동, 부지형 (John Bu)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부지형 집사님과 동생 Mark)

부지형 집사님은 오랜 기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여러 그룹에서 선봉장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거쳐간 아이들이라면 부지형 집사님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겁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이 10년 넘게 봉사하시고, 청년 1부와 2부를 거치며 회장역 총무역 회계역 찬양팀 리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오신 분으로 하루라도 교회에 안 오시면 그 구멍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행사에는 이 분, 부지형 집사님이 늘 계십니다. 특히 탁구에 진심인 이 분.. 이준석 (Enoch Lee) 집사님과 함께 집안 대결로 번졌던 지난 번 탁구대회만 봐도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죠? 영어예배에서도 이 분 없으면 안됩니다. 찬양도 리드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 분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함을 넘어 ‘이 분 왜 목사님 안 하시지’ 싶을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둘 다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성적이라고 하시며 겸손함까지 굳이 숨기시는 부지형 집사님. 이번 여름엔 나바호 선교도 또 가십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파해주세요 집사님! 당신의 모든 섬김을,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편집자 주(註)>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리아 여성회

회장 이소은 집사

마리아 여성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 21일 마리아 여성회 전체 총회를 갖고 2024년을 이끌어 주실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자원해 주셔서 힘차게 2024년 마리아 여성회 출발합니다!

회장: 이소은 집사, 부회장: 김연희 집사, 총무: 김은정 집사, 회계:이성희 집사, 서기:김영순 권사

1월14일 청년부 점심식사 섬김으로 돈까스와 떡국을 했는데 한국이나 다른 주에 본가가 있어 집에 가지 못하는 청년 교우님들이 고향의 정을 느꼈다며 매우 좋아하셨고 준비하는 저희들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이 마리아 회원님들 간의 친목회를 갖고 교제와 전도, 부흥에 힘쓰고자 합니다. 매 짝수 달마다 함께 모여 신앙과 생활을 나누고 우리 마리아 여성회의 부흥을 도모합니다. 2월25일 권사회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권사회와 마리아 여성회 등 여성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행사를 공유하고 함께하며 특히 7-12월까지 후반기 6개월 동안의 1부 다과를 권사회에서 섬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 에스더 여성회 임원단 구성이 되지 않아 에스더 여성회에서 하던 행사를 일부 마리아 여성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 모두 힘쓰고 있으니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17일 우리 여성회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약속하는 “마리아 헌신 예배”를 2부에 드렸습니다. 1월부터 준비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과 부탁 그리고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갚는 여성회가 되겠습니다.



황신재 정승신 (John & Monica)의 3, 4월의 기도제목



지난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매주 대학가를 중심으로 복음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소와 비아냥 가운데서도 18명의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사역집이 대학가 중심에 있다보니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4월 부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간과 점심 시간대를 이용해 친구들을 데려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가 복음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집의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재정 2만불 중 지금까지 1만 2천5백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창문들을 바꾸고 두개의 식당 모두 개조했습니다. 남은 재정과 일정이 순조롭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고난주간에 저희 모든 사역에 속한 공동체와 학생들이 성경일독에 돌입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한주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 첫 주말부터 대학생들과 전문인들을 위한 주말 훈련학교를 시작합니다. 저의 오픈강의를 시작으로 12주(주말) 간의 강의와 2주 동안 선교여행을 가지게 됩니다. 올 전반기 훈련학교는 아프리카로 선교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막내아들 성은 /시은부부는 저와 같은 선교단체 (YWAM)의 선교사로 중동의 레바논으로 사역차 떠났습니다. 지난 주에 잘 도착해서 정착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주위의 우려에도 두 부부의 결심은 기쁨가운데 확고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답니다.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백지수표를 날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서약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하거나 아플 때나 함께 주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의 삶 가운데 그일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황신재 정승신 선교사 올림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권사회는 교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역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총회에서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이미 회장을 하신지라 제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역대 회장님들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최선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사회에서 늘 진행해 왔던 모든 일에 더하기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몇가지 ‘살롬행사’를 계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중 하나로 2월엔 마리아와 함께 ‘떡볶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매콤, 졸깃한 떡볶이와 깊고, 구수한 오징어의 환상적인 맛의 조화처럼 마리아와 권사회가 함께 하여 ‘따로’가 아닌 ‘하나’임을 확인하는 따끈 따끈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 동생들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진

마리아와 하나되어 교회의 한 구석을 밝히는데 작은 빛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밖의 행사로 3월에는 쉼터를 방문하기위해 시장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3월 17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헌신예배를 위해서 아우(마리아)들이 특별 다과를 준비해 주어서 얼마나 감동이었던지요!

오는 부활절에는 권사회에서 계란 샐러드 샌드위치로 부활절의 기쁨을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록기도회

상록기도회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상록기도회 모임 - 송미자권사님 식사제공.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상록회 성탄 선물 보내주심

1월 상록기도회 모임 - 신년 떡국 잔치 서명숙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제공

2월 상록기도회 모임 - 팔죽 잔치 김명희 집사님 제공

3월 상록기도회 모임 - 새배행사: 12분 참석. 새뱃돈으로 박기춘 권사님 \$200.00 보내주심

웃놀이에도 참석 자리를 빛냄

3월 식사제공 - 김현지 권사님, 윤헌자 집사님 식사 제공

3월 초청강의: 수의 신비 강사 - 정광근 장로님

집사회

회장 배광현 집사

3월 24일 주일 예배 후 서리 집사님들과의 소통의 장이 이정규 장로님/김영미 권사님 댁에서 열렸습니다. 열 두명의 서리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이정규 장로님/김영미 권사님, 김한나 장로님, 장양술 장로님, 김대식 피택 장로님, 윤경문 목사님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확연히 줄어 소통에 아쉬움을 느꼈던 터라 마주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한층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끔 혹 들어오는 장로님의 ‘라떼는~’으로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

베풀어주신 어른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와주신 집사님들이 있어 가능했던 이 만남을 통해 집사회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의 짐을 들어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 2024년에는 이주원 집사님(총무), 최정규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 손효정 집사님이 함께 집사회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손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중에 봄맞이 대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옛 교우 동정 - 예배하는 자

故 박영일 은퇴 장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신 박영일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 :9-11)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의 귀절은 앞의 4:1 즉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이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니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예배에서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24장로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창조의 목적을 밝히셨고 시편 115:17 에서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라고 옮겨 생명이 있는 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찬양을 드릴 수있다고 하셨으며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고 고백한 전도서 기자의 독백처럼 우리들이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무상함이 또 한 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4중창 찬양곡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찬양단의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 마치 내가 부르는 것처럼 아니 나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 졌습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가사를 적어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순례자

기쁜 마음 가진 이에게 축복의 노래를
슬픈 마음 가진 이에게 위로의 노래를
꼭조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 앞에 설때까지 주 찬양 찬양하려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구원 받은 이웃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은혜 깊은 곡조로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찬양 찬양하려네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 받은 주의 종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우리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하는 순례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찬양 찬양 하려네
할렐루야 아 멘.

찬양이 찬양자 자신이 드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의 표현이라면 지금 몽클하고 뜨거운 나의 가슴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며 결단된 내 삶의 방향인가라는 질문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뜨겁던 내 가슴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제 27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Muju Firefly Festival) 지난 9월 2일 (토) 부터 9월 10일 (일) 까지 9일간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 것은 반딧불을 특화시킨 축제로 1997 년에 처음 열린 뒤에 해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인 반딧불을 우리는 개뿔벌레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밤에 반짝이는 이 반딧불은 어른 벌레일 때 뿐만 아니라 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 때에도 빛을 낸다고 합니다. 알일때는 빛이 매우 약하고 어른벌레 처럼 깜빡거리지는 않지만 날이 갈수록 빛은 밝아집니다. 애벌레는 물 속에 떨어져 기어다니면서 다슬기를 먹고 살지만 여전히 몸에 빛을 간직합니다. 애벌레는 여섯 번이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비가 내리면 땅을 파고 들어가 땅속 벽에 몸에서나오는 액체를 발라 방수를 하고 잠을 잡니다. 이 때도 역시 빛을 냅니다. 몸은 번데기로 변했지만 빛은 여전히 나오고 애벌레 때보다 더 빛을 냅니다. 땅속에 들어간 지 40일이 지나면 번데기는 계속 몸을 움직여서 얇은 허물을 벗고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날아 보지 못했던 하늘을 날며 반딧불은 초여름 어두움을 신선한 빛으로 채웁니다. 12개월 정도를 지나며 알에서 애벌레로 또 번데기로 성장한 뒤에 날게 달린 반디가 되어 날기 시작하면 단 15일 동안 일생 가운데 제일 밝은 빛을 낸 후에 숨을 거둡니다. 우리의 눈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는 밤의 반딧불은 단지 15일간만 밝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빛을 발합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반디가 되기까지 12개월의 긴 과정을 거쳐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반디의 여정처럼 우리도 60년 70년의 긴 여정을 거쳐 밝은 빛을 발하는 성숙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15일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순례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구원을 받고 기쁨 부음을 받은 이 세상 최상의 특권을 받은 자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 큰 빛을 발하는 사역에 오늘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 곁에 갔을 때 잘 훈련된 모습으로 보좌 앞에 엮드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직분으로 이어 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24 장로는 학자들 간에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사도를 지칭하며 오늘날의 교회의 대표로 이해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Virginia 지역의 교회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명을 받은 택함 받은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한 순간도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현실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예배를 준비하는 귀하고 거룩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찬양을 배우고 준비하는 우리 중창단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여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빛을 발하는15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 빛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밝은 웃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쌓여있는 자에게 위로의 노래를 들려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축복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들을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수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다시 한 번 깊게 찾아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편집자 주(註)> 상기 글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보내주신 글로 사순절 묵상집에 실린 장로님의 글은 일부 발췌하여 짧게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길 담임목사 71번째 생일 축하 기도문

김문소 은퇴 장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영길 목사의 71세 생신을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지난 이십 여년간 창립 50, 60, 70주년을 잘 마치고, 또 코로나 pandemic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이겨냈습니다. 1995년부터 29년간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오시며, 울창한 까만 머리가 영성한 머리되고 당뇨병 생기도록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목회하신 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80세 갈렙과 같은 건강한 심신으로 한 해 한 해를 힘껏 이 어머니 교회를 목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생신 케익을 준비한 손길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

주님, 저의 마음을 담은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노익장된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2024년 생신 축하로 드리오며 우리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집후기

점점 익숙해져가는 무한 반복 편집 사이클... 우리 아버지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원고를 퍼 부어 주시는 통에 앞으로 한 동안은 한울타리 계속 발간 예정 ㅠㅜ 함께 일하실 분 급구... 해치지않아요... (편집짱 헤덜리)

보스턴 떠나온지 4년 넘어가는데 저는 그 곳에 없으나 그 곳에 있는 너깁니다아~
다음 호 한울타리 “달라스에서 옛 교우 동정” 짹~ 기대하시라!
권두언 이영길 목사님의 ‘새로운 시작’ 에 딱 어울리는 가정이 대기중입니다 (여기는 달라스)

편집후기는 이름 없는 편집자의 비하인드 스토리이다. 편집짱님은 이름 없는 우리에게 자꾸 흔적을 남기라 하신다. (편집원J)

